총선과 원자력

제15대 총선이 끝난지 두 달이 되어간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유권자들 나름대로 해석이 분분하리라 생각한다.

나는 지금 총선의 결과나 과정을 평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겐 그럴 입장도, 이유도 없다. 나는 단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총선의 유세 과정을 지켜보며, 프랑스나 일본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의 참다운 용기 있는 후보자를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적어도 한 두 사람은 원자력발전소나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을 우리 고장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소신파 후보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우리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나 원자력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아직도 이토록 근접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인가.

왜 우리에겐 아직도 원자력 사업의 전모를 올바로 알고 이를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용기 있고 앞서가는 선각자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 초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한 상원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반웰(Barnwell)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일이 있다. 92년부터 운전에 들어간 프랑스의 로브(L Aube)핵폐기물 처분장도 좋은 본보기이다.

프랑스는 라아그(La Hague) 재처리 시설에 인접해 있는 라망쉬(La Manche) 처분장이 70년말 포화 상태로 문을 닫게 될 것에 대비해서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이 84년 9월부터 제2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28개 후보지가 가려졌고 이중 로브와 앙드르(Indre) · 비앙(Vienne) 등 3개지가 최종 후보지로 낙착됐다.

그러나 로브 지역의 슬랑(Soulaine) 읍장은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적극 나서 12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ANDRA는 이렇게 해서 파리 동남쪽 약 150km 떨어진 로브의 슬랑 지역을 제2처분장으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원폭의 피해를 직접 본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로카쇼촌(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의 9개 전력 회사 연합체인 일본 전기사업연합회가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을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핵연료 농축, 중 ·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등 3개 핵시설 부지로 선정한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원래 이 지역은 71년 정부와 아오모리현이 대규모 석유 콤비나트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아오모리현, 그리고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무쓰오가와라 개발주식회사를 설립, 약 170만평의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73년 세계적인 석유 파동으로 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석유 비축 시설만 유치키로 했다.

일본 정부와 아오모리현은 전기사업연합회에 부지 사용을 권고하였고, 이에 전기사업연합회는 84년 4월 아오모리 현에 핵 관련 3개 시설을 아오모리현 로카쇼촌에 입지케 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해 7월 아오모리현과 로카쇼촌에 3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정식으로 입지 신청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1년 후인 85년 4월 전기사업연합회는 아오모리현과 로카쇼촌으로부터 입지 협력 요청을 수락한다는 공식 회답을 받아냈다.

한편 전기사업연합회로부터 입지 협력을 요청받은 아오모리현과 로카쇼촌은 현과 촌내에 각각 안전성 전문가회의와 시설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핵연료 주기 사업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기 위해 사업 내용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동시에 주민은 연구회를 결성하여 원자력의 실상을 알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카이촌 원자력 시설과 해외 원자력 시설들을 견학하여 관련 지식을 넓혀갔다.

그리고 84년 11월에는 안전성 전문가회의에서 핵연료 주기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아오모리현 지사에게 제출하였다. 85년에는 로카쇼촌 의회와 아오모리현 의회에서 사업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냈다.

정부가 부지를 먼저 결정하고, 촌의회와 협의회에 이어 국회의 의견을 거쳐 로카쇼촌에 거대한 일본의 대단위 핵단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당시 로카쇼촌의 촌장은 히로시 쯔시다였다. 히로시 쯔시다는 애초 반핵 입장을 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촌장이 된 후 사용후 핵연리 재처리, 핵연료 농축,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운전에 따른 안전성과 이같은 시설이 갖는 의미를 면밀히 검토한 후 찬핵으로 돌아섰다.

이들 시설이 일본을 위해 꼭 필요하며 안전성에 대해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확신과 함께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히로시 쯔시다는 확신이 서자 마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사랑방 좌담회 등을 개최하며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역설했다.

처음 반대 입장에 섰던 많은 주민들은 촌장이 갑자기 반핵에서 찬핵으로 돌아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촌장의 확신에 찬 설득에 차차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현재 로카쇼촌의 핵시설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히로시 쯔시다 촌장은 이제 이들에게 반핵 운동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할 정도로 여유를 갖고 있다. 어느 정도의 반대자가 있어야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다.

핵시설에 관한 이같은 사례를 미국과 프랑스 · 일본에서 찾아 보면서 원자력 정책에 대해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는 방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곧 새로운 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00년대 초 7대 선진 공업국 대열에 올라설 원대한 꿈을 안고 있다. 그러나 선진 사회로의 진입은 국민, 특히 지도자급 인사들의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발상의 대전환을 말하고 있다.

원자력 사업이야말로 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물론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에 이르기까지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 광 영
과학평론가